4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리세션 완화`에 반등	<p>뉴욕증시가 29일(현지시간) 사흘만에 반등했음. 은행주가 반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바닥론이 투자심리를 북돋웠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68.78포인트(2.11%) 상승한 8,185.73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13포인트(2.28%) 오른 1,711.94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8.48포인트(2.16%) 상승한 873.64를 각각 기록했다.</p> <p>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기업들의 투자축소 및 재고급감 여파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마이너스 6.1%로 발표됐지만, 반등세를 꺾지 못했음. 투자자들은 오히려 1분기 재고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경기바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음.</p>
美 연준 "경기위축 둔화되고 있다"	<p>미 연준의 통화 및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치고 제로수준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0~0.25%)에서 동결했음. FOMC는 발표문에서 실업과 가계의 자산감소, 타이트한 신용여건, 기업들의 투자 및 재고 축소 등으로 미국의 경제활동이 당분간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p>
미 1분기 GDP 성장률 -6.1%..예상보다 악화	<p>미국 상무부는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기준으로 마이너스 6.1%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로써 미국의 GDP는 1974~1975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특히 2분기 연속 6%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6개월간 성적표는 1957~58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p>
대기업 매출 `뚝'...전분기 대비 9%하락	<p>30일 증권정보업체 Fn 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40 위 대기업(금융업종과 사업 분할,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비교가 어려운 기업, 실적 미발표 기업 제외)의 1분기 매출액은 102 조 2,864 억원, 영업이익은 2 조 804 억원으로 집계됐음. 이는 전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으나 매출액은 9.1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05%, 영업이익은 73.77% 줄어든 금액임.</p>

제목	주요 내용
은행권 1분기 순이익 8,000억원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8천2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4.9% 급감. 다만 작년 4분기에 3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임. 시중금리 하락 여파로 순이자마진(NIM)이 작년 동기 2.38%에서 1.91%로 0.47%포인트 축소. 이에 따라 이자이익이 8조2,000억원에서 7조 8,000억 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음.
대한전선,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대한전선(001440)은 1,000억원 규모로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 3자배정 대상자는 삼양금속과 NHK-IBK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임. 삼양금속 대상의 신주 발행가액은 우선주 2만3,400원, NHK-IBK 1호사모투자회사는 우선주 2만원으로 결정됐고, 납입일은 5월4일임. 대한전선은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납입능력과 시기를 고려해 배정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
유럽서도 SI 2차전염 첫 발생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멕시코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돼지 인플루엔자(SI)에 감염되는 2차 전염이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 이날 스페인 보건부는 "1명의 환자가 멕시코를 방문하지 않고 멕시코 방문자에 의해 간접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스페인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8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돼 환자 수는 10명으로 증가. 이 밖에도 50명의 의심환자가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내수 올인' 中 "고정자산 투자 늘릴 것"	내수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전력중인 중국이 고정자산 투자를 한층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2009년 경제체제 개혁 공작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키고 고정자산 투자 항목 자산 비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
中 초상銀 1Q 순익, 전년比 33%↓	시가총액 기준 중국 5위 은행인 초상은행의 분기 순익이 전년 대비 33% 급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초상은행은 대출 마진 감소로 인해 1분기 순익이 전년 동기의 63억2000만위안(주당 0.43위안)에서 42억1000만위안(주당 0.28위안)으로 33% 감소했다고 29일 보도.
日경제, SI 충격 우려	일본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하반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그러나 미 대륙에서 확산되고 있는 돼지독감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교역이 위축될 경우 일본 경제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